



제주탐모라로타리클럽 쌀 후원

제주탐모라로타리클럽(회장 양영단)은 지난 12일 회장 취임식에서 지원받은 쌀 700kg을 어르신들을 위해 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센터장 김지수)에 후원했다. 제주탐모라로타리클럽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후원을 마련했으며, 사회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을 실천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환경농협 창립 55주년 조합원 한마음대회

환경농협(조합장 김군진)은 지난 9일 농협 채소유통센터에서 창립 55주년을 기념하는 '조합원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조합원과 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농협 성장에 기여한 우수 조합원과 원로 조합원에 대한 표창 수여, 노래자랑과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조합원들이 소통하고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영디자인 안덕면 취약계층 지원 성금 기탁

영디자인(대표 김용화)은 지난 11일 안덕면사무소(면장 김태유)에서 관내 어려운 이웃 지원을 위한 성금 10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연)에 기탁했다.

“국가유공자 마지막 길 예우”... 6월 언성 히어로들

제주경찰청은 '6월 언성 히어로'로 제주경찰청 교통순찰팀, 서부경찰서 에월파출소 1팀, 서귀포경찰서 형사5팀을 선정하고 표창장과 포상휴가를 수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청 교통순찰팀은 국가유공자 운구차량 에스콧 임무를 수행하며 유공자의 마지막길을 예우했다. 또 국가중요행사 시 기동경호 업무를 수행하며 교통사고 등 돌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다.

서부서 에월파출소 1팀은 탄력순찰 중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발견해 차량 창문을 깨고 응급조치, 119에 인계해 골든타임을 지켜냈다. 또 200만원 상당의 가방을 절취하고 도주한 외국인 관광객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귀포서 형사5팀은 '첫알요름 예비검속 희생자 추모비' 모금함에 보관된 현금 2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를 하루만에 검거하고, 농촌 주택가에서 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고 도주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한편 언성 히어로는 보이지 않는 영웅이라는 뜻으로, 남들 눈에 띄지 않지만 묵묵히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제주어·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잇따라 개최

제주어와 이중언어 말하기 실력을 겨루는 대회가 잇따라 열렸다.

제주국제교육원은 지난 13일 '2026 이중언어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14회째인 이 대회는 도내 이주배경학생의 이중언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다문화 정체성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기 위해 열리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1차 원고 심사를 통과한 28명이 무대에 올라 부모의 모국어인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네덜어, 우르두어로 발표를 진행했다. 상위 수상자 3명은 오는 11월 전국 이중언어말하기대회에 제주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이들과 함께 별도 심사를 통과한 학생 총 6명에는 부모의 모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앞서 지난 12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서귀포학생문화원 대강당에서 '2026 제주어말하기 대회'(사진)를 열었다. 이번 대회에는 유치원과



초·중학교 총 15개 팀, 학생 112명이 참가해 제주어 노래 부르기 및 제주어 단막극 부문에서 실력을 선보였다. 제주어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소멸위기 언어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학생들이 제주어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고 학교와 가정에서 제주어를 더욱 친숙하게 사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숨비소리 제주해녀 안전지킴이' 확대

서귀포소방서(서장 고정배)는 제주해녀의 조업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선제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숨비소리 제주해녀 안전지킴이' 프로그램을 신규 해녀 양성 과정으로 확대 운영한다.

제주해녀 안전지킴이 프로그램은 ▷안전사고 예방 및 신고·대처 요령 교육 ▷심폐소생술 실습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기초 건강 체크 ▷119안심콜 서비스 등록 등으로 구성된 해녀 맞춤형 안전대책이다.

서귀포소방은 올해 관내 10개 어촌계(해녀 233명)에 대한 교육을 목표로 이번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2개 어촌계 교육을 마쳤다. 지난 13일에는 대상을 확대해 관내 법환해녀학교 신규 해녀 양성 과정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병행 실



시했다. 고정배 서귀포소방서장은 "예비 해녀 시절부터 안전수칙과 응급처치법을 몸에 익히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동료의 생명을 구하는 초기 심폐소생술 등 양성 단계부터 철저한 안전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대병원 제9대 병원장에 장원영 교수

제주대학교병원 제9대 병원장에 장원영(사진)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외과 교수가 취임했다.



15일 제주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이날 취임한 장원영 신임 병원장은 첫 공식 일정으로 전국 국립대병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장 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지역 연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도민들이 제주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집중하겠다"며 "의료진이 진료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교육·연구·진료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국립대학병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장 병원장은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전공의·전임의 과정을 거쳐 외과 전문의, 대장항문 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2002년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부임해 진료와 교육·연구 활동을 이어왔다. 장 병원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9년 6월 14일까지 3년이다.

꿈바당도서관 '신화학자를 만나다' 특강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은 '명사와 만나다' 강연 시리즈로 신화학자인 허남춘(사진) 제주대 명예교수를 초청한다. 오는 19일 오후 6시30분 도서관 프로그램실.



이날 특강은 '제주신화에 담긴 인생 철학'을 주제로 열린다. 신화가 단순한 옛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유효한 인생의 철학을 재미있고 명쾌하게 풀어낼 예정이다.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진다.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30명을 대상으로 한다. 도서관 누리집 참고.



제주농협·고향주부모임 반찬 나눔

농협제주본부(본부장 이춘협)와 (사)고향주부모임 제주도지회(회장 김민자)는 15일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랑의 양파지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당 축 선

CONGRATULATIONS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동(갑)

양영식
(성주공 31세)

노형(갑)

양경호
(성주공 32세)

아라(을)

양영수
(성주공 31세)

성산(을)

양홍식
(성주공 34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양씨사직공파종친회 회장 양승보

양씨중랑장공파종친회 회장 양창범

양씨천호공파종친회 회장 양광수

양씨청년회총본부 회장 양상철

양씨종회총본부 회장 양순명 외 종친 일동